

‘노조추천 사외이사’ 통과? 부결?... KB 주시하는 금융가

KB금융, 23일 정기주총

안건 중 ‘정관 변경안’도 논란
이사회는 노조제안 공식 반대
가결엔 ‘주주제안 선임’ 첫 사례



서울 여의도 KB금융.

오는 23일 열릴 KB금융지주의 정기 주총회에 노동조합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낙하산 방지 안건이 올라왔다. KB금융 이사회가 이들 안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임시 주총에서는 노조의 제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번 두 번째 표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 올라온 안건 중 표대결이 예상되는 노조 제안 안건은 총 3가지다. 권순원 사외이사의 선임을 비롯해 이사선임 자격을 제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정관 변경안이다.

KB노조가 우리사주조합과 함께 6개월 이상 KB금융 주식을 보유한 지분 0.18%에 해당하는 주주의 위임장을 받아 안건으로 올린 주주제안이다.

사외이사 선임은 의결권 주식수 4분의 1 이상 참석에 참석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는 “권 후보는 최적의 사외이사 후보여서 주총 안건 분석전문기관(ISS 지칭)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한

(제7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제안))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제7-1호 의안	제 36조(이사의 선임) (신설)	제 36조(이사의 선임) ③ 이사회는 최근 5년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직자 또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으로서 공직 또는 정당 활동에 상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주주 제안에 의한 신설
제7-2호 의안	제 48조(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48조(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7항 제3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한다.	주주 제안에 의한 개정

/자료=금감원

바 있다. 작년 임시 주총 당시 ISS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KB이사회는 “성공적으로 정착돼 온 현행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KB금융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만약 주총에서 가결된다면 KB금융의 사외이사는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게 되고,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가 선임된

첫 사례가 된다.

정관 변경안은 사외이사 선임보다 논쟁 여지가 더 크다.

먼저 이사선임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최근 5년 이내에 공직 또는 정당 활동을 한 기간이 합산해 2년 이상인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일명 ‘낙하산 방지 정관’이다.

사실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 규정 등 관련 법의 제한 범위를 상당히 초과

하는 것이다.

KB이사회는 “이사 후보자들의 폭 넓은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정관 등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은 지난달 대표이사 회장이 사추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이사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규정은 이사회 과반이 찬성하면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만큼 아예 정관을 바꿔야 한다”며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정관 개정은 이사 선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다. KB금융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9.79%)이며,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6월 기준 68.1%에 달한다.

금융권의 관심도 크다. 이번 KB금융의 주총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나 은행의 노조도 사외이사 선임 등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한은행, 韓 금융권 최초 멕시코에 법인

위성호 행장

“멕시코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



신한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멕시코에 현지법인 ‘신한은행 멕시코’를 개점했다. 지난 6일(멕시코 현지 시간 기준) 멕시코시티 소재 멕시코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신한은행 멕시코’개점행사에서 위성호 은행장(좌측에서 여섯번째)과 멕시코 금융위원회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안투냐 부위원장(좌측에서 다섯번째),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남미 멕시코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현지법인 ‘신한은행 멕시코’를 개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과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안투냐 멕시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재무부, 중앙은행, 은행연합회 등 멕시코 현지 기관 관계자, 주(駐)멕시코 김상일 대사, KOTRA 중남미본부 양국보 본부장,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멕시코지회 장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호 행장은 “멕시코는 미국에 인접한 지정학적 강점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중남미 생산기지로서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멕시코 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 멕시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 11월 멕시코 대표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현지 진출을 추진해 2015년 9월 영업 예비인가, 2017년 12월 최종 영업인가를 획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멕시코의 영업인 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외국계 은행이 진출하기 어려웠으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멕시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등 한국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권 최초로 현지 영업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는 미국에 인접한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미주지역 내 가장 효율적인 생산제조기지로 자동차·전자·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삼성전자·POSCO 등 국내 기업들도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등 진출이 빠른 지역이다. 신한은행은 멕시코 현지 진출 국내기업 및 협력업체, 교민 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영업기반을 구축한 뒤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접목해 멕시코 현지에 특화된 소매 영업을 진행하는 등 궁극적인 현지 은행으로 성장해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멕시코 지점 출범으로 세계 20개국 158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동시에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글로벌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빗썸, 무인 안내·결제 시스템 사업 진출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제품 공급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키오스크(무인 안내·결제 시스템) 사업에 진출한다.

빗썸은 7일 렌털료 등 설치·운영 비용을 대폭 낮춘 제품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달 우노스페이, 트로스시스템즈, 아임유 등 키오스크 제조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과 소규모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적화된 키오스크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키오스크는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안내시스템이다. 이제까지는 주로 자동입출금기(ATM), 자판기 등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매장 주문·결제용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빗썸은 실속형부터 고급형까지 세 가지 키오스크 제품을 터치비(Touch B) 브랜드로 출시한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매장 규모나 카드·현금 결제 등 용도에 따



라 다양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카페, 분식집 등 규모가 작은 점포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키오스크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키오스크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활성화됐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키오스크는 소상공인들의 렌털료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빗썸은 기존 타사 키오스크 대비 10% 가량 렌털료를 낮출 계획이다.

빗썸은 암호화폐 거래소 강점을 살려 향후 키오스크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빗썸 계정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환산한 자산인 ‘빗썸 캐시’를 다양한 결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빗썸은 최근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AI 자산관리 ‘케이봇 쌤’ 모바일 오픈

10만원 이상 투자고객에 최적 서비스

KB국민은행은 7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케이봇 쌤을 모바일과 인터넷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케이봇 쌤은 KB금융그룹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지난 1월 영업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오픈한 바 있다. 이번 비대면 출시를 통해 투자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고객이라면, 영업점과 모바일 및 인터넷에서 최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케이봇 쌤은 모바일, 인터넷, 영업점 각 채널에 맞게 서비스를 차별화해, 자산관리를 전혀 모르는 고객도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업점과 인터넷에서는 휴먼 전문가와 로보어드바이저의 심층 비교가 가능하고, 모바일 버전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최적 로보어드바이저 추천 설계로 쉽고 빠르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케이봇 쌤은 모바일, 인터넷, 영업점 환경의 빈틈없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영업점에서 설계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나중에 본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가입을 할 수 있게 구현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봇 쌤 전담상담센터의 전문인력을 통해 24시간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케이봇 쌤은 모바일, 인터넷, 영업점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가입해도 고객별 복수 포트폴리오 관리, 자산진단 모니터링, 리밸런싱 자산조정 알림 등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KEB하나은행, 글로벌 청년 인턴 모집

KEB하나은행은 우리 청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하나로! 세계로!’ 키워내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글로벌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

KEB하나은행의 글로벌 청년 인턴은 2개월 코스로 진행되는 재학생 대상 과정과 6개월코스로 운영되는 졸업(예정)자 대상 과정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국내에서 일정기간 본점 글로벌 유관부서와 영업점 업무를 경험하고, 해외에서 해당국의 국외 영업점 업무를 지원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해외 인턴 수행시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정부의 新남방



정책 추진과 향후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의 청년 전문가의 자질을 배양하게 된다. /김문호 기자 kmh@